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교 공지사항에 새로운 교과목 개설에 대한 안내문을 읽게 되었다. 국제학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과목이었다. 안내문 내용에서 나의 눈에 띄는 내용은 단연 장학금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장학금 내용은 강의기간동안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성적을 산출해 우수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는 것인데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수강신청당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학기가 개강을 하였고 수강정정기간 한 과목을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 고민하던 찰나였다. 그러다 한 후배가 아시아 공동체론 OT 내용의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때 보고, “어? 이거 장학금 준다는 과목이네.”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종이에에는 학기 간 ‘아시아 공동체론’강의를 위해 강연을 오시는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단숨에 ‘아시아 공동체론’강의를 신청했다. 단지 강연하러 오시는 인사들만 보고 강의를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왜 우리는 유럽의 공동체인 EU나 다른 지역보다 공동체의식이 저조할까?”라는 의구심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한일FTA 결렬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기에 아시아 공동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아시아 공동체론’은 박성빈 교수님이 주관하시고 그 외의 2명의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일본의 원아시아 재단이 후원하는 보통강의와 다른 수업이었다. 또한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은 1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만큼 우수학생들이 많았다. 그렇기에 교수님들이 우수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강의를 끝나고 그에 대한 요약과 생각을 레포트 형식으로 자필로 적어 제출하는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강의를 들을 때, 강연하는 분의 내용을 꼼꼼히 적었다. 1분 1초라도 집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만약 평가방식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강연도중 잠시 딴생각에 빠지거나 졸았을지도 모른다. 평가는 레포트뿐 아니라 강연 후 질의응답도 포함되었는데, 항상 강연도중 궁금한 내용을 적어 놓고 질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100여명의 학생들의 열의가 넘치는 질문에 하지 못했던 적도 많았다. 그래서 항상 강의를 준비하시는 박성빈 교수님께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셨다. 대학생들의 강의 내용은 거의 책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 공동체론’은 이론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수업이 아니었나 싶다. 반면 노력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수업이니 만큼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바로 강의 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강의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강연하시는 분들마다 준비한 내용을 다 못하거나 시간에 쫓겨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운 점들은 수업에 대해 애정이 있고, 호기심이 있었기에 느낀 것 같다.

처음 강의를 정준곤 박사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강의를 진행되었는데 첫 강의에 맞게 지금이 왜 아시아 공동체가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셨다. 강의 순서에 맞게 전체적인 구성이 알맞다는 느낌은 점점 강의를 진행되면서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를 뽑으라면, 국제학술회의가 아닌가 싶다. 그렇게 스케일이 큰 학술회의는 처음이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동시통역 장치를 들으면서 회의에 참여한 것도 처음이었다. 그 동안 ‘아시아 공동체론’을 들으면서 가장 한국과 긴밀했던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주된 내용이었다. 일본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가해서 일본의 지난 경제침체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고, 한국이 일본의

절차를 밟아간다는 세간의 말에 대한 저명한 인사들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다. 한·일 경제발전에 대해서 저명한 인사들이 회의를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학술회의 이외에도 기억에 남는 강연이 많았다. 그 중 기억나는 강의는 강태웅 교수님의 한·중·일의 영화문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한국, 중국, 일본의 영화산업의 발전과정, 각국의 현황, 그리고 공동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서 굉장히 뜻 깊었다.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에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또한 기억의 남는 강의는 아베마코토 박사님의 강의였다. 아베 박사님은 한일경제협력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강의의 첫 외국인 강연자였고 내용도 흥미로웠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다. 그러한 국내의 여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교수님들도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시아 공동체론 담당이신 박성빈 교수님이 직접 통역을 하시기도 하고 영어강의는 우리가 직접 듣기도 하였다. 강의의 내용에 맞게 한국어 뿐 아닌 외국어로도 강연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유익한 강의가 아니었나 싶다.

강의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 데, 주로 한국과 연관된 내용이었다. 경제뿐만 아니라 생소한 아시아 지역의 문화나 아시아 각국의 세부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 있는 강의가 있었다. 그러한 것을 배우면서 여러 측면이 서로 연관이 될 수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정치·역사적인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나 또한 양국 경제협력에 앞서 정치·역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각국의 경제협력에 이바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했다. 그만큼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수업은 나에게서 가치관과 관념의 변화를 일으킨 수업이었다.

어떠한 강의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강의는 학생들 자신에게 필히 좋은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 ‘아시아 공동체론’은 지금까지 나의 대학생활 중 동기부여가 제일 잘된 수업이었고 결과 또한 만족스럽게 나온 수업이 아니었나 싶다. 항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교수님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